

“국민 여동생?... 부담보다 힘이 생겨요”

아시안게임 D-30

“국민 여동생이요? 부담이 되기도 단 힘이 생겨요”

‘탁구 신동’으로 불리며 어릴 때부터 방송에 출연했던 신유빈(19·대한항공)은 국민들에게 꽤 친숙한 국가대표 선수다. ‘무한도전’(MBC)이나 ‘스타킹’(SBS) 등 예능프로그램에 나와 웃음기 지운 야무진 표정으로 어른들과 탁구 실력을 겨루던 ‘꼬마’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그렇게 신유빈이 탁구 선수로 거듭나는 성장 과정을 지켜왔다. 축구계에는 ‘숯불이’ 이강인(22·리제제프랑)이 있는 것처럼, ‘국민 여동생’ ‘국민 남동생’이란 수식어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한편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니까.

신유빈의 생각은 어떻게 궁금했다. “국민 여동생” 같다는 표현이 너무 듣기 좋네. 그렇게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니까요. 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23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만난 신유빈은 내달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9월 23일~10월 8일)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무엇보다 응원의 힘이 필요한 시기에 ‘국민 여동생’이란 애칭이 마음에 들었나 보다. 5세 때부터 탁구채를 잡은 신유빈은 2019년 청명중 3학년 때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다. 탁구 역사상 최연소 국가대표(만 14세 11개월 16일)로 발탁된 순간이었다. 만 16세 때는 탁구 역대 최연소 올림픽 국가대표로 뽑혀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다. 경기할 때 외치는 기합 소리가 병아리 우는 소리 같아 붙여진 ‘삐약이’란 별명도 이때 생겼다.

이때까지만 해도 신유빈은 그저 기대주였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라섰다. 국내 여자 탁구 선수 중 유일하게 세계랭킹

신유빈은	
생년월일	2004년 7월 5일
신체조건	키 169cm 몸무게 60kg
출신교	군포화산초·청명중
소속팀	대한항공
주요이력	
2019년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국가대표
2020년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국가대표
2021년	제32회 도쿄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수상경력	
2019년	국제탁구연맹(ITTF) 체코오픈 혼합복식 우승
2021년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스타 컨텐더 1차 대회 여자복식 우승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여자복식 우승, 여자단식 준우승
2022년	WTT 컨텐더 노바 고리차 대회 여자단식·혼합복식 우승
2023년	WTT 컨텐더 자그레브 대회 여자복식 우승 WTT 컨텐더 라고스 대회 여자단식 우승 ITTF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복식 은메달 WTT 컨텐더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여자복식·혼합복식 우승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31일 앞둔 23일 진천선수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기대주였던 신유빈은 2년 만에 한국 탁구의 대들보로 성장했다. 진천=안다운 인턴기자

탁구 세계 톱10 신유빈

5월 더반 세계탁구선수권에서 세계 최강 쑨잉사·왕만위조 꺾어 뉴델리 대회 이후 36년 만의 쾌거

여단·여복·혼합복식 모두 출전 “힘들다는 생각할 겨를 없어 우승보다 내용 좋은 경기할게요”

‘톱 10’ 안에 진입(9위이하 8월 22일 기준)했다. 2019년부터 호흡을 맞춘 전지희(31·미레이셋증권)와 여자복식에서 세계랭킹 1위에 올라 있고, 혼합

복식의 신유빈-임종훈(26·한국거래소) 조는 세계 3위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신유빈에게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신유빈은 걱정보다 설렘이 앞선다고 했다. 신유빈은 “도쿄올림픽에 나갔을 때도 떨리기보다는 매 경기를 할 때마다 재미있고 신기한 마음이 더 컸다. 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아마 올림픽을 경험해 봐서 그때보다 마음이 더 자랐는지도 모르겠다”며 웃었다.

큰 대회의 경험은 선수에겐 자양분과 같다. 지난 5월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그렇다.

신유빈-전지희 조는 이 대회 4강에서 세계 최강 쑨잉사-왕만위 조를 꺾는 과업을 일으키며 결승에 진출했다. 1987년 뉴델리 대회 양영자-현정화 조 이후 36년 만의 일이었다. 결승에서 아쉽게 우승을 놓쳤지만 신유빈의 표정은 우승자보다 더 환하게 빛났다. 그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은 것 같았다.

신유빈은 2021년 11월 이 대회에서 손복 피로골절 부상으로 1년 넘게 쉬어야 했다. 두 차례 수술로 “아, 이제 탁구를 못 하는 건가”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2년 만에 다시 출전한 세계 선수권에서의 은메달은 금메달이나

마찬가지였다. 신유빈은 “세계선수권이라는 무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이 가장 기뻐했다”고 했다.

신유빈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여자단식과 여자복식, 혼합단식에 모두 출전할 예정이다. “제작년부터 3개 종목 모두 출전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경기에만 집중하니까 힘들다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거든요. 하나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 종목 모두 잘하고 싶어요. 아, 우승이 목표라기보다는 내용이 좋은, 과정이 좋은 경기를 하려고요.”

강은영 기자

신진서 ‘바둑 올림픽’ 응씨배 첫 우승... 한국 6번째 정상

중국 세커에 종합전적 2-0 승리 최철한 이후 14년 만에 패권 탈환 신 9단, 세계기전 5번째 타이틀 “응씨배만을 위해 준비 많이했죠”

신진서(23) 9단이 ‘바둑 올림픽’ 응씨배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신진서는 23일 중국 상하이 창닝구 쑤커별장에서 열린 제9회 응씨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결승 3경기 제2국에서 중국의 세커(23) 9단을 상대로 226수 만에 백 불계승했다. 이틀 전 제1국에서도 승리했던 신진서는 이로써 종합 전적 2-0으로 정상에 올랐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려 ‘바둑 올림픽’으로 불리는 응씨배에서 단일 대회 최다 우승 상금인 40만 달러(약 5억3,600만 원)를 쟁긴 신진서는 4년 연속 상금 10억 원을 돌파했다. 응씨배 대회 전까지 받았던 7억 1,000만 원에 이번 대회 상금을 합친 금액은 12억4,600만 원으로, 지난해 자신이 세운 역대 연간 최다 상금(14억4,495만 원)도 갈아치울 전망이다. 종전 최다 상금 기록은 2014년 이세돌 9단의 14억1,000만 원이었다. 또한 신진서는 2012년 7월 일단



신진서가 23일 중국 상하이 창닝구 쑤커별장에서 열린 제9회 응씨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결승 3경기 제2국에서 중국의 세커와 대국을 하고 있다. 한국기원 제공

이후 11년 만에 33번째 타이틀을 따내며 역대 타이틀 순위 단독 5위에 올랐다. 메이저 세계기전 타이틀은 LG배 2회 우승과 삼성화재배, 춘란배 1차례씩에 이어 응씨배까지 5번째 우승이다.

신진서의 우승으로 한국은 2009년 최철한 9단이 6회 대회에서 우승한 후 14년 만에 응씨배 패권을 탈환했다. 1~4회 대회에서 조훈현 서봉수 유창혁 이창호 9단이 4연패를 이룩했고, 6회 대회 때는 최철한 9단

이 우승했다. 5회 대회(창하오)와 7회 대회(판팅위), 8회 대회(탕웨이싱)는 중국에 우승을 내줬지만 9회 대회에서 신진서가 다시 정상에 오르며 한국은 통산 최다인 6회 우승을 달성했다.

이날 백을 잡은 신진서는 좌변과 상변에 커다란 세력을 형성하며 유리한 형세를 이끌었다. 세커가 실리 행진을 거듭한 모습을 보이자 총공격에 나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신진서의 압박에 시종일관 끌려다녔던 세커는 어떻게든 판을 흔들 어보려 했지만 신진서가 실수 없이 침착하게 받아내자 결국 돌을 던졌다. 결승 3경기에서 2승을 거둔 신진서는 세커와 상대 전적을 2승 1패 우세로 뒤집었다.

신진서는 우승 후 “응씨배만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승하게 돼 기쁘다”며 “이전 세계 대회에서 많이 패하기도 해서 이번 우승이 특히 값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국가 대표팀에서 공동 연구도 하고, 개인적으로 시간 안배를 위해 포석 준비도 많이 했다. 별점을 받지 않기 위해 많이 신경 썼다”며 “긴장을 안 할 줄 알았는데 부담을 느껴서였는지 대국 전 잠을 잘 못 잤다. 하지만 중국에 심범섭 단장님, 목진석 감독님, 한종진 사범님 등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셔서 힘이 많이 났다. (6월) 란카배 패배 이후에도 믿어주고 응원해주신 바둑 팬분들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올림픽 종목 체험 진입 장벽도 낮춰

레벨업 스포츠

〈3·끝〉 비인기 종목, 관심저변 확대



대한체육회가 강원 속초시 척산생활체육관에 문을 열고 운영 중인 실감형 스포츠체험관 ‘스포츠 넥스트 레벨’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새로운 스포츠 활동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체험 시설 종목은 스포츠클라이밍, 브레이킹, 스케이트보드(사진) 세 종목이다. 모두 2024 파리 올림픽 정식 종목이다. 다만 일부 마니아층만 즐기고,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인식이 강해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스포츠다.

스포츠 넥스트 레벨은 가상현실(VR) 에베레스트, 증강현실(AR) 브레이킹 등 다양한 디지털 스포츠 콘텐츠와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 생소하게 느껴지는 종목일지라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종목별 단체들도 스포츠 넥스트 레벨 조성에 적극 참여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클라이밍을 담당할 권상수 대한산악연맹 사무처장은 “유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클라이밍을 떠올리면 무섭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안전하다”며 “일단 접근하면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접근성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브레이킹을 맡은 유인선 대한민국댄스포츠연맹 차장은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파리 올림픽 정식 종목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브레이킹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 경기에만 집중하니까 힘들다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거든요. 하나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 종목 모두 잘하고 싶어요. 아, 우승이 목표라기보다는 내용이 좋은, 과정이 좋은 경기를 하려고요.”

강은영 기자

알립니다

봉황대기 우천 순연

23일 서울 목동·신월구장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제51회 봉황대기 전국고교 야구대회 6경기가 24일로 우천 순연됐습니다. 이에 따라 준결승은 9월 4일, 결승전은 9월 6일 열립니다.

오늘의 봉황대기

24일(목)	목동
경북고	09:00 부산공업고
휘문고	11:30 광주제일고
신흥고	14:00 경주고
신월	
대구상원고	09:00 인천고
경기향공고	11:00 은평BC
물금고	14:00 충훈고